

발견자로부터의 정보입수가 중요

송 재 철
(경찰수사연수소)

1970년대초 호텔이나 주상복합 건물같은 대형건물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했던 때가 있었다. 고도 산업사회로 발돋움할 때여서 외국인들의 국내 출입도 잦았고, 대형 호텔등에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콜걸들도 많이 출입할 때였다.

일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곳에서의 화재는 콜걸들과 동침하던 외국인들의 고급 소지품이나 현금 등을 노려 방화했을 것이라고 공연히 얘기들을 하기도 했다. 콜걸이 자기가 사용한 방에서, 또는 다른 장소를 택했다손치더라도 관계는 없겠지만 방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확실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침자가 깨지 않도록 하거나 해침없이 귀중품등 소지품을 챙기고, 엄청 날 수 있는 결과도 무시하고 속내의나 팬티바람으로 뛰어 나와야 하는 쇼까지는 넘길 수 있다해도 사후 발화장소에서의 모든 소진물의 멸실관계, 위치확인, 대조 등이 화재현장조사의 기본인 점을 고려한다면 비록 몸을 파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해서 이들이 상습적으로 해 온 짓들로 매도해서는 안될 일이다.

목적건물과 달라서 대형 내화건물에서의 발화로 층간의 구획이 분명하고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으

로 객실이나 사무실의 구획이 분명하여 회원부나 발화부로부터의 연소확대 진행상황이 확연하므로 이를 판별하기 어려운 예는 흔치 않고, 구체적으로 발화부인 호, 실, 방에서의 투숙자와 동침 콜걸의 추적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단순한 얘깃거리일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재건물의 거주자가 시간적으로는 역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는 일이 많고, 중요한 해결 관건을 쥐고 있는 일이 많다. 발견자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나의 여부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언급한바 있듯이 발견 상황과 발견 동기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조기에 격리된 상황에서 대화하여야 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고, 발견상황 설명에 있어서의 화염이나 연기의 색, 냄새, 소리같은 것에 대한 얘기들도 중요한 내용이 된다.

석탄이나 석유류, 고무류와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검은 연기와 검붉은 화염이 일어나지만 불꽃놀이 의 여러가지 아름다운 색깔같은 것은 화약에 물질의 연소시 발생 되는 여러가지 색깔 특징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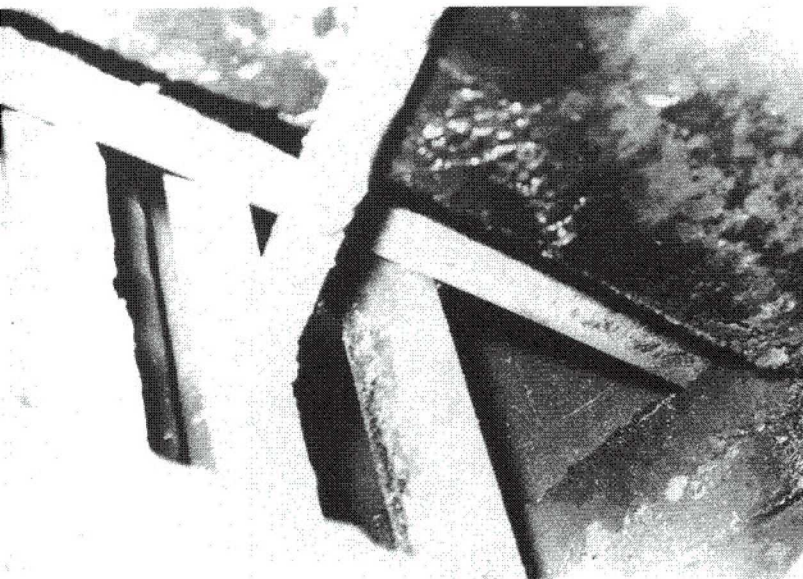
이물질들을 첨가시킨 결과임도 알아두어야 겠다.

불꽃이 청색인 것은 구리 또는 구리 분말, 적색은 스토론튬이나 질소의 화합물, 노란색은 나트륨이나 염소의 화합물, 유황이나 소다분말, 초록색은 설탕이나 바륨 화합물, 보라색은 칼륨화합물, 흰색은 인과 그 외의 초산 세루로즈, 스테아린, 납, 안티몬같은 것이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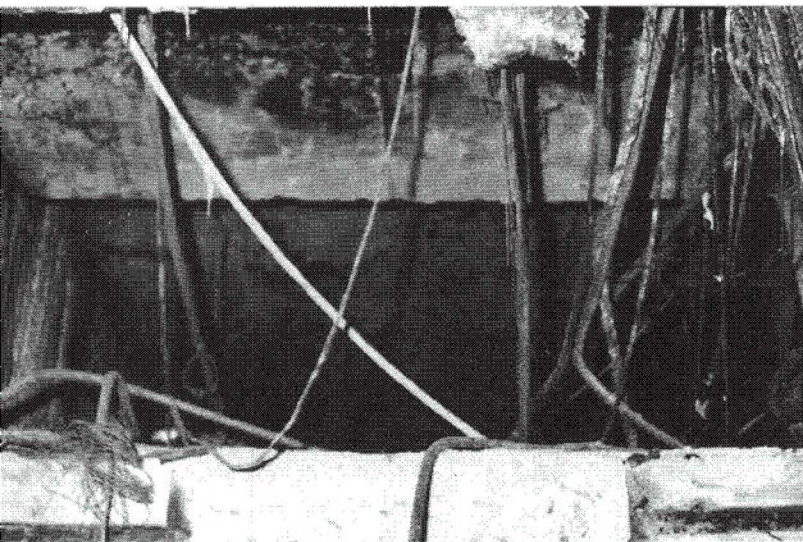
연소시의 독특한 냄새가 나는 것들로는 유황이나 염소산카리, 질산화합물, 인과 같은 것들이 있고 화약류나 대나무, 전구류, 각종 밀폐된 용기류들은 폭음이나 파열음이 나는 등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것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건축물의 자재와 구조, 집적물건의 배치 등은 연소의 상승성과 연소경로의 확인상 중요한 요인들인 것이다.

화재예방의 계획과 유사시 즉각 대처해야하는 소방기관에서는 소방진입로, 구조재, 집적물건류, 각종 소방시설(경보, 유도, 피난, 소화 등) 등에 대한 것을, 보험회사에서는 연소의 결과를 손해사정해야하는 입장에서 볼 때, 보험가입시 구조재와 집적물 등을 위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게 마련이어



〈건물내부의 구획된 벽이 천장선 위로는 마감되지 않아 연소시 개구부로서 연소 확대 경로가 된다.〉



〈건물내 각종 배관등이 지나가는 핏트의 내벽을 마감처리하지 않아 연소 확대 경로가 된다.〉

서 목조, 준내화조, 내화조로 대별한뒤 대상물의 취급물건 등 위험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분야에서는 일조, 공조, 냉난방, 환경, 기능, 층계와 엘리베이터, 통로 등의 개구부 형성관

계, 건축주의 경제 사정상 재료선택과 설계변경 문제, 그리고 철골이나 철근콘크리트의 일체식이거나 벽돌, 브로크 등의 조적식, 각종 가구식 등으로 구분하고 화재원인 조사에서는 연소확대 경로에

따른 건물배치, 집적물의 중요도와 종류, 통로, 점화 용이장소 등에 대한 것이 중점적으로 검토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의 경로, 대피나 소화의 행적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구획, 방위, 중요한 방(房)이나 실(室)의 위치, 건물의 주 구조재, 양식, 높이(층수), 용도구분, 주위 건물높이(층수), 이적거리, 통행로 등을 거주자나 시공 및 설계자 등을 상대로 하여 가능한한 도면도 작성하고 화재전의 사진같은 것이 있으면 확보하고, 화원부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내부의 집적물 상황까지 소상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사건은 1층 커피숍에서 20kg들이 LPG 용기가 파열되면서 건물 전체로 연소 확대된 것이다. 전층으로 쉽게 연소확대가 된것은 LPG 용기가 파열되면서 일시에 폭발, 층계를 따라 전층으로 상승 연소 확산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초기 고층건물이어서 건축허가나 준공시 건축, 소방법 적용의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방화문은 물론 방화벽의 구획과 방, 실간의 구획도 천장선까지만 되어 있었고 공조설비의 댐퍼(damper)도 그 기능을 할 수 없었음을 건축비 절감만을 위한 처사에서 비롯된 결과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건물 구조의 미비로 우리나라 초기 고층 아파트의 경우도 아랫층 화재가 윗층으로 연소되어 윗층 입주자들이 자주 인명피해를 낸 화재사건도 빈번했다.

